

“5·18 시리즈로 역사 잊으면 반복된다는 교훈 전하고 싶어”

이경혜 작가, 5·18 연작 ‘명령’·‘그는 오지 않았다’ 출간
80년 5월 청소년 희생자 소재...매년 2권씩 총 8권 계획
광주출신 대학 동기 증언·외신기자 영상 보고 실상 알아
2011년 연희동 옆집에 전두환 살아 작품 써야겠다 다짐



1980년 ‘서울의 봄’을 외치며 서울역 시위에 참여했던 한 여대생은 30여년이 흐른 후 전두환의 옆집에 살게 된다. 그는 늙은 독재자와 벽 하나를 맞대고 5월을 보내며 19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스러져간 어린 희생자들을 위한 책을 쓰기로 마음 먹는다.

청소년 소설을 꾸준히 써온 이경혜(여·65·사진) 작가는 “이야기란 어떤 영혼이 작가의 몸을 통로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었기에 가없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다.

연작 시리즈 ‘명령’과 ‘그는 오지 않았다’(바람의 아이들)를 출간했다.

“명령”은 책방 앞에서 계엄군의 몽둥이에 맞아 숨진 동신고 3학년 박기현, ‘그는 오지 않았다’는 계엄군의 M16 총탄에 맞아 사망한 17살 자계 공장 노동자 박인배를 모델로 삼았다. 이 작가는 앞으로 4년간 매년 5월 18일에 맞춰 2권씩 총 8권을 선보일 계획이다.

1980년 5·18 민주항쟁은 당시 한국외대 불문과 2학년이던 이 작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언론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지만 광주 출신 대학 동기들의 증언과 외신기자들이 찍은 영상을 보고 실상을 알게 된 그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안양노동상담소에서 ‘광주의 밤’ 행사를 열고 음악극, 합창,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5·18을 알렸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지난 2011년 서울연희문학창작촌에 머물며 작품을 집필

했다. 연희창작촌 터는 과거 전두환 경호원들이 거주하던 자리로 서울시에 압수되면서 작가들의 거주공간이 됐다. 창작촌 옆집에는 전두환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창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특히 그해 5월 5·18 행사를 치르고 먹먹한 가슴을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 바로 옆집에 전두환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작가는 6·25를 겪은 작가들이 끊임없이 6·25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5·18을 겪은 작가로서 5·18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잘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선블리 글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신문 한 권에서 희생자 151명의 삶이 담긴 5·18 증언록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를 접했다. 이 작가는 이 모든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5·18 청소년 희생자들을 다룬 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소설인 만큼 픽션이 가미됐다. ‘그는 오지 않았다’의 주인공 박인배는 월급 받기 사흘 전 총에 맞아 숨졌지만 ‘월급을 받게 해주고 싶었다’는 바람을 담아 소설에서는 월급날을 앞당겼다. 또 ‘순미’라는 여주인공을 만들어 박인배의 삶에 분홍빛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또 독자들이 망월동 민주묘지에 묻힌 그들을 찾아가 기억하고 다독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의 말 뒤에 박기현과 박인배의 무덤 번호를 적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게 아닐까’ 상상하며 무더한 생의 뒷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5·18 청소년 희생자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돼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작가는 “시리즈를 통해 5·18 희생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역사를 잊으면 반복될 수 있다는 12·3 계엄의 교훈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경쟁력 확보 나서

전남도·여수시·산업계 관계자 참석
위기대응협의체 열고 추진방안 공유

전남도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에서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여수산학융합원에서 전남도·여수시와 산업계, 노동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학융합원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협의체를 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마련 및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일정 등을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세계 최대 규모 단일 화학산단으로 전남 경제의

핵심이지만 최근의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3707억원 규모의 19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19개 사업은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경영·기술·회계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전남도는 국비 지원 및 국회에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것과 별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지원, 고용유지지원금과 복지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여수지역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등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52억원의 산업위기 대응사업 예산을 확보해 신속한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

스터 구축, 친환경 화학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중장기 전략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도 설명하는 한편, 지역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내년도 본예산과 향후 국고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일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김진아 기자 ‘물길 끊긴 어도(魚道), 생태계도 끊겼다’ 기획보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중현)는 17일 ‘제418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김진아(사진) 기자의 ‘물길 끊긴 어도(魚道), 생태계도 끊겼다’ 등 4편을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물길 끊긴 어도, 생태계도 끊겼다’ 연속 기획보도는 하천 생태계의 핵심 생태 인프라인 ‘어도(魚道)’가 애초부터 물고기의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된 탓에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기자는 전남지역에 있는 ‘불량 어도’ 114 곳을 3개월간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실태를 고



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2026년부터 개·보수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일괄 정비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전기차 560여대분 보조금 추가지급

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7천만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주시가 전기자동차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규정이 지난 6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400여대, 전기화물차 160여대 등 총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

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거나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을 하는 경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8일
주식회사 조은사람들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55 (용봉동)
청산인 백진오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옥용(511005-1XXXXXX)
• 최종주소 : 광주 북구 금호로 9-7(운암동)
피상속인 망 이옥용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5년561호로 신청하여 2025년 7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8일
• 상속인 : 이종훈(831217-1XXXXXX)
광주 북구 우치로347번길 7, 203호 (삼각동)
• 신고기간 : 2025. 7. 18. ~ 2025. 9. 2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종훈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권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지(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